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鄉土資料의 蒐集, 保存 및 利用에 관한 小考〉

姜 權 益 (濟州大)

향토자료란 향토의 흐름을 연구하고 향토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길잡이가 되는 향토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향토자료는 유형이건, 무형이건, 또는 정신적인 것이건, 물질적인 것이건 그것들은 모두 향토의 참모습을 알 수 있게 하며, 향토중심의 생활교육에 산 자료를 제공하고, 향토의 조사연구에 기여하여 향토의 발전과 향토인에 대한 봉사도 아울러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아직껏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향토자료는 크게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형적인 것은 다시 동산적인 자료와 부동산적인 자료로 나누어진다.

유형적인 것으로는 각종 기구, 서화, 문집, 경서, 일기 등 기타 각 분야에 걸친 연구서, 지침서 등의 동산적인 자료와 사적, 성곽, 기념물 등의 건조물과 묘지, 탑 등의 석조물류가 있다. 그리고 무형적인 것으로는 전설, 정신적 생활감정, 신앙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향토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널리 홍보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수집된 향토자료는 다른 자료보다 보존에의 신중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에 향토자료실이 설치되어야 하겠고 지역주민에 대한 향토자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재해 있는 향토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미개발된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 수집, 보존할 수 있는 기구가 형성되는 것도 하나의 보존책이라 할 수 있다.

수집, 보관된 자료는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때 그 가치가 있다. 그

러므로 대외적으로 도서관 상호협력에 의한 상호대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도서관 자체내에서는 Card목록 작성 Information file 작성, 책자형 목록 작성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료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모든 공·사단체, 기관, 그리고 지역구성원의 책임이며 사명인 것이다.

대학 도서관은 향토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정리, 보존하여 이용에 봉사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향토에 대한 지식을 증진 시킬 뿐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심과 관심도를 깊게 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향토문화의 중심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